7·30 재보선 1년… 이정현 광주·전남 첫 새누리당 지역구 국회의원 인터뷰

"잘못된 국회 행태·정당 운영 국민에 까발려 바로잡을 것"

1년 전 순천·곡성지역구에서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는 전국의 이목이 집중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 선거에 나온 탓도 있었지만 야당의 텃밭인 지역에서 그 벽을 허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엿보였기 때문이다. 결과는 놀라웠다.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의 완승이었다.

이 의원의 승리는 '지역주의'라는 대한민국 정치의 비정상을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을 줬다. 지난 1년 이 의원의 활동은 매우 왕성했다. 이에 광주일보는 그로부터 지난 1년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목표를 들었다.

– 지난 1년간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

▲7·30 보궐선거 후 지난 1년간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빨리 지나간 한 해였다. 한 일도 많지만 아직도 해야할 일이 산적해 있어 마음이 조급할 뿐이다. 지난 1년은 오직 '순천 보은', '곡성 보은'의 심정으로 하루하루 의원직을 수행했다.

– 스스로 자신의 의정활동을 평가한다면. 점수로는 몇 점이나 되나.

▲ 나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만족은 없다. 다만, 너무도 지역유권자들의 은혜가 커서 지역 일에 매달리다 보니 국정에는 다소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큰 정치에 대한 평소 소신을 구현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을 것이다. 점수로 매긴다면 80점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한다.

–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채 1년이 안되게 남았다. 남은 기간 꼭 해야 할 일은.

▲ 남은 기간 동안 지역을 위해 꼭 할 일은 순천에 국가공공의료대학 및 부속병원 유치를 진전시키고 섬진강과 보성강 물을 되찾는 것이다. 그리고 곡성에 한전 관련 공장, 잡월드(직업체험관), 호남지역 호국관 유치 등 그동안 추진해온 일의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또 예결위원이 됐다. 목표는.

▲ 6번째로 예결위원이 됐다. 헌정사에서는 아마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기록이다. 호남지역에 지역구 여권 국회의원이 나 외에는 없어서 예결위원회에 반드시 넣어달라고 떼를 썼다. 그리고 내년 예산 관련해서 호남예산 창구 역할을 열심히 할 것이다.

– 이정현 의원을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 '왕의 남자'로 불리는 등 최측근이라고 부른다. 개별 정치인 이정현으로서 하고 싶은 일은.

▲ 70년 역사의 우리 국회를 한번 총정리하는 일을 추진하고 싶다. 지금 우리 국회는 원래의 기능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을 만큼 전반적으로 제도·의식·관행·행태가 구태의연하다. 잘못된 행태를 온 국민에게 까발려서 국민 여론과 압박으로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예산 심의·확정 과정은 개탄스럽고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이런 점은 연간 수백억 원의 국민 혈세를 지원받고 있는 정당 운영도 마찬가지다. 정치쇄신을 넘어 이 모든 것을 깨뜨리는 '망치 정치'의 주역이 되고 싶다.

– 선거구가 재획정에서 순천·곡성도 대상이 될 수 있는데.

▲ 선거구 획정 문제는 선관위 최종 결정에 따를 것이다. 그러나 지난 7·30 보궐선거 때 순천·곡성 유권자들에게 입은 은혜가 워낙 크기 때문에 19대 국회 임기 말까지 선거구에 관계없이 두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쏟을 것이다.

– 우여곡절 끝에 당청관계가 정상화됐다. 바람직한 당청관계는.

▲ 당정청이 국정운영에 대한 공동목표를 정확하게 공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서로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당정청 회의에서는 얼마든지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또 논의될 수 있지만 한번 결정이 되면 단합해서 추진하는 것이 본래 도리다. 한 마디로 당정청은 한 몸과 같아서 손과 발과 머리가 유기적으로 함께 움직이는 것이 정상이다.

– 김무성 대표가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 김 대표를 평가한다면.

▲ 정치권에서 김 대표를 25년 동안 가까이서 지켜봤다. 당대표가 되기 이전과 되고 나서의 리더십은 정말 큰 차이가 있어보인다. 우선 화합과 통합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그리고 야당과 반대세력에 대한 포용력 또한 놀라울 정도로 크고 관대하다.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 호남은 야권의 신당론과 분당론으로 시끄럽다. 이를 바라보는 심정은.

▲ 솔직히 새정치민주연합의 쇄신과 혁신에 대해서는 주목하고 있지만 호남 물갈이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다. 물갈이는 유권자가 하는 것이지 당 지도부나 혁신위가 하는 것이 아니다. 30여년간 싹 쓸어서 밀어준 대가가 호남이라는 특정지역을 거명한 물갈이를 거론하는 것을 보고 정치인을 떠나 호남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불만스러웠다. 어떻게 보면 공천받으면 투표시간만 기다리면 되는 '부전승 선거'를 치러온 나약한 호남정치인들의 자업자득인지도 모른다. 호남에서 치열한 정치경쟁이 회복되면 호남에서도 다시 '김대중 대통령'처럼 큰 정치인들이 다수 나올 것이다. 그러나 경쟁이 없는 선거가 계속된다면 호남 정치는 극심한 쇠퇴를 면치 못할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선거구 획정 관계없이 순천·곡성 발전에 혼신
호남물갈이 매우 불만 혁신위 아닌 유권자 몫

■ 7·30 재보선 1년 … 광주·전남 당선 의원들 의정 활동 들여다보니

이개호, 추경 심사서 법인세 인하 이슈 만들어
신정훈, 도열병 피해 농업재해 첫 인정 이끌어
권은희, 하남산단 정부 경쟁력 사업 선정 주역

이개호 의원

신정훈 의원

권은희 의원

지난해 7·30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진출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광주 권은희 의원(광산 을)과 전남의 이개호(담양·장성·영광·함평),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의정 활동 1년을 맞았다.

당 내외에서는 새내기 국회의원들의 지난 1년 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무난하지만 분발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우선 전남도 행정부지사 출신의 이개호 의원은 등원과 함께 원내 부대표로 임명되면서 지역 현안 및 지역 민심의 창구 역할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또 올해는 국회 예결위원을 맡아 추경안 심사에서 법인세 인하 이슈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상임위에서는 지방의 관점에서 국가 정책의 실효성과 과학 기술 분야의 수도권 편중 문제를 지적하는가 하면 원전 안전에 대한 문제점을 날카롭게 파헤치는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치적으로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적 성향을 보이며 온화한 소통의 정치력을 키워가고 있다.

이 의원은 특유의 친화력을 바탕으로 전남 유일의 4개 군으로 구성된 지역구를 현장 중심으로 다지고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관료 출신의 신중함을 넘어 과감한 정치적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정훈 의원도 주목받는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있다. 지난 3월 새정치민주연합 초대 전국 농어민위원장에 임명됐으며 벼이삭 도열병 피해를 최초로 농업 재해로 인정받게 하는 성과를 올렸다.

지난 1년 동안 15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농업 정책 및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당내 정치혁신실천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치 혁신 논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유일하게 국회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맡아 농어촌 지역구 사수 및 지역 의석수 현행 유지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공천 제도 혁신 등에도 주력하고 있다. 지역 현안과 관련,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과 백신 글로벌 산업화 지원 기반 구축 사업 등을 통해 나주와 화순의 미래를 열어간다는 계획이다.

당내 젊은 피로 평가 받는 신 의원이 당내 계파의 '하청정치'에서 벗어나 호남 정치의 정체성과 비전을 제시할 것인지 주목된다.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외압을 폭로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출신의 권은희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다.

전략공천 논란으로 당 내외의 눈총을 받은 것은 물론 상임위도 경찰 출신이라는 점에서 행안위로 배정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국방위로 배정됐다. 여기에다 권 의원은 보수시민단체의 위증 고발 사건으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로부터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되는 등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하지만, 권 의원은 끗끗하게 난관을 헤쳐 나가고 있다는 평가다. 상임위 활동을 통해 군내의 법치주의 확립과 인권 보장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무등산 정상 방공포대 이전, 전두환 범종 환수 등 지역 현안 해결의 성과도 거뒀다.

이와함께 공익 신고자들의 보호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입법했고 광산 하남산단이 정부의 경쟁력 강화 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국회 예결위원으로 선정되면서 내년도 지역 국고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호남 정치의 위기 국면에서 정치적 존재감은 아직은 기대치에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적격 인물은 마다하고, 응모자는 중량감 없어 고민

초대 광주전남연구원장 누가 될지 관심
일부선 "명망가 참여 조건 제시 못했다"

초대 광주전남연구원장에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가 합의한 '명망가'가 선임될 수 있을지에 지역 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접수결과 7명이 응모했으며, 후보자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연구원 내부에 '함구령'이 내려진 상태다.

30일 광주시와 전남도, 광주전남연구원 등에 따르면 연구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연구원을 대표해 업무를 총괄하고 경영의 책임을 진다. 보수는 최초 임용시 차관급으로 하고, 이후 매년 성과계약에 따라 정해진다.

응모자격은 대학교의 정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등으로 정했다.

이 같은 자격기준에도 불구하고 초대 원장은 민선 6기 광주·전남상생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중량감은 물론 지역 내 공감대까지 얻을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지역출신이면서 장관 이상을 거친 인물이 거론됐었다. 그러나 접수 결과 지역대학 교수, 정부출연기관 연구기관장 등이 접수해 '기대치'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시·도의 고위관계자가 적격자로 판단되는 인물을 사전에 접촉했으나 이들이 모두 고사해 발길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초대 원장 선임 절차를 서두른데다 '명망가'들이 참여를 희망할만한 조건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원장 적격기준을 심도 깊게 논의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로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앞으로의 금융
광주문화신협, 북광주신협 저금리 무담보 무보증 신용대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최고 7,000만원
문화신협과 북광주신협에서 신속히 지원 해 드리겠습니다

□ 대상업종 : 메르스 피해로 인한 매출부진 업종(음식점, 마트, 소매업종 등)
□ 자격기준 : 2015년도 월평균대비 6월기준 카드매출 5%이상 감소 사업장
□ 대출한도 : 최고 7천만원 한도(사업주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가 적용됨)
□ 대출기간 : 최장 700일
□ 상환방식 : 매일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및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매일상환 조견표(예시) (단위:원)

구분	180일	360일	500일	700일
1,000만원	56,874	29,103	21,332	15,628
3,000만원	170,622	87,309	63,996	46,885
5,000만원	284,371	145,515	106,660	78,142
7,000만원	398,120	203,721	149,325	109,399

문흥본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블루밍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
북광주신협 일곡지점 572-8167